

# 역신(疫神)의 정체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고찰

황병익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고전시가 전공  
hwangbi@ks.ac.kr

- I. 머리말
- II. 신라 〈처용가〉 역신(疫神)의 정체
- III. 처용설화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 IV. 맷음말

이 논문은 2011년 경성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임(과제번호: 2011608).

## I. 머리말

〈처용가(處容歌)〉나 처용설화에 관한 연구는 다른 향가작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활발하여, 어학·문예학·연극학·민속신앙·역사학·심리학·불교 신앙적 관점 등 여러 분야에서 양적·질적으로도 풍성한 성과를 내었다.<sup>1)</sup>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와 집적이 개별적 혹은 종합적<sup>2)</sup>으로 이루어졌고, 게다가 〈처용가〉, 〈처용〉, 〈처용훈〉, 〈처용의 어둠〉, 〈처용의 시대〉 등 처용을 소재로 한 현대시<sup>3)</sup> 여러 편이 확대 재생산되었으니 처용이나 〈처용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처용가〉 관련 연구가 200여 편을 상회하니 이젠 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잡고 논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힘겹고 벼거운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논의의 폭이 넓고 시각과 관점 또한 다양하니 이제는 영역 간의 통섭을 시도하는 연구, 기존의 다양한 논점을 하나씩 모아가는 차원의 논의들이 새로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라 (향가) 〈처용가〉와 〈고려 처용가〉는 상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용이 취하는 태도는 아주 판이하다. 신라 〈처용가〉는 포용적 자세를 취하지만 〈고려 처용가〉는 위협의 언사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 변이로만 취급할 수는 없고 시적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시적 전술에서 〈처용가〉의 1~6구는 공통이지만 신라 〈처용가〉 7~8구 “본래 내 것이지마는 앗긴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는 내면적 자세를 취함에 비해 〈고려 처용가〉는 이 구절만 삭제하고 “열병신(熱病神)이사 희(膾)ㅅ 가시로다”라며 공격적이고 외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sup>4)</sup> 신라 〈처용가〉 마지막 구절 “아사늘 엇디흐릿고”를 어떻게

1) 金鎮英, 「處容의 정체」, 『韓國文學史의 爭點』(集文堂, 1986), 169~174쪽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관점에 따라 자세히 분석하였다.

2) 李佑成 外, 「韓國學 方法論의 檢討를 위한 제1회 學術 심포지엄 處容說話의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別輯 1(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2); 金烈圭·申東旭·李相澤 編, 「處容說話의 綜合的 考察」, 國文學論文選 1 『鄉歌研究』(民衆書館, 1977); 金東旭·黃渙江·金慶洙 編, 『處容研究論叢』(蔚山文化院, 1989); 처용연구전집 간행 위원회 김경수 외, 『處容研究全集』 II 문학1 / 『處容研究全集』 II 문학2 / 『處容研究全集』 III 민속 / 『處容研究全集』 IV 종합(亦樂, 2005); 김경수 외, 『처용은 누구인가』(역락, 2005).

3) 박노준, 『향가 어요의 정서와 변용』(태학사, 2001), 269~282쪽; 崔美汀, 「處容의 文學傳承의 本質」, 『冠岳語文研究』 5(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169~186쪽에서 이들 현대시와 〈처용가〉를 연계한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읽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의(歌意)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절은 초기 학자들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다.

이 글은 신라 〈처용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먼저 역신(疫神)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을 전제한 후 논의를 진행해갈 것이다. 그동안 역신을 외간 남자로 보는 시각은 여럿 있었으나 정작 역신이 처용의 처와 '절여지 숙(竊與之宿)'한 일을 질병이나 의료민속의 관점에서 실체를 파헤치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간에 관습화되어 있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관념과 행위를 의료민속학적 관점에서 살펴, 자신의 아내를 범하는 역신을 향해 처용이 취한 행동의 진의를 파악하려 한다. 먼저 '역신(疫神)'의 정의와 지칭 범위를 살핀 후에, 신라 〈처용가〉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관용과 체념, 분노와 위협 등으로 서로 다르게 읽어왔던 『삼국유사』·『처용랑(處容郎) 망해사(望海寺)』 조의 성격을 재검討하고자 한다. 이는 〈처용가〉의 마지막 구절 "아사늘 엇디흐릿고"에 담긴 내포적 의미를 다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II. 신라 〈처용가〉 역신(疫神)의 정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의 '처용랑 망해사' 조는 신라 현강왕(憲康王, 875-886) 때의 일을 적고 있다. "처용의 처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역신이 그녀를 흡모하여 딴 사람이 없는 밤을 틈타 그 집에 와서 그녀의 잠자리에 몰래 머물렀다(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라고 했기에 그동안 역신의 존재와 행위에 관해 아주 다양한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역신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기에 앞서 역신의 문헌적 쓰임과 의미를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역신'은 흔히 '역귀(疫鬼)'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sup>5)</sup> 역신에 대해서는 "(고대 중국의) 황제 전우(顛頃)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나자마자 죽어 귀신이 되었다. 그중 하나는 양쯔 강 물에 살아 온귀(蠹鬼)라고 불렸고, 그중 또 하나는 약수(若水)에 살면서 요괴도 깨비(魍魎)가 되었으며, 그중 마지막 하나는 궁궐의 구석진 곳에 살면서

4) 최재남, 「〈처용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집문당, 1992), 82-83쪽.

5) "禮曰 顛頃氏有三子 生而亡去爲疫鬼." (王充, 『論衡』 訂鬼).

어린아이들을 잘 놀라게 하였다”고<sup>6)</sup>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전욱은 중국 상고의 제왕 5제(五帝) 가운데 하나이다. 세 아들이 나자마자 죽는 바람에 돌림병, 귀신, 도깨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무가에서는 “손님네 삼 분이 우리 조선을 나오실나고 / 어주(義州) 압록강 당도하니 / 배 한 척이 전이 없네”에서처럼<sup>7)</sup> 손님의 원위(源委)로 늘 중국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포창(庖瘡)을 옮기는 신이 스스로를 역신의 무리로 칭하고 있다.<sup>8)</sup> 포창을 달리 ‘마마’라고 부르는데, 수포가 생겨 물을 쌌 것같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에 역신은 전염병 가운데 두창(痘瘡, smallpox) · 포창을 옮기는 귀신을 칭한다. 역신은 전염성이 강하여 흔히 ‘큰 돌림, 대역(大疫), 천행두(天行痘)’라 칭했으며, 특히 신귀(神鬼)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sup>9)</sup> 우리에게는 ‘천연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옛 문헌에는 ‘두창 · 완두창(豌豆瘡) · 두질(痘疾) · 두진(痘疹) · 두역(痘疫) · 두환(痘患) · 두후(痘候) · 천두(天痘) · 천창(天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이고, 그 가운데 ‘두창’이 가장 대표적인 지칭이다.<sup>10)</sup> 민간에서는 이를 두고 ‘손님, 마마’라 칭한다. 먼저 점이 생겼다가 부어오르고 관장(灌漿)되는 것이 마치 꽃봉오리가 피는 것 같고, 7일이 지나면 수엽(收翳), 탈가(脫痂)하는 것이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천화(天花)’라고도 하고, 창형(瘡形)이 콩과 같기 때문에 두창이라 했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sup>11)</sup>

두창의 최초 발원지로는 인도가 가장 유력하다.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전파되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한다. 우리나라에는 4, 5세기경에 북으로는 연접된 대륙의

6) “疫神, 帝顓頊有三子 生而亡去爲鬼 其一者居江水 是爲瘡鬼 其一者居若水 是爲魍魎 其一者居人宮室 樞隅處 善驚小兒。”(蔡邕 撰, 『獨斷』卷上)

7) 金泰坤, 『韓國巫歌集』1(集文堂, 1971), 345-349쪽.

8) “予等疫神徒 司庖瘡之病 予等亦元依此病死成疫神 此歲國人 始憂庖瘡。”(李圭景, 「痘疫有神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卷57, 人事篇1, 人事類2)

9) 新太陽社 編輯局 百科事典部, 『原色最新醫療大百科事典』(新太陽社, 1991); “其中 瘡瘍癥 偏以神鬼稱 故怪而辨其大略。”(李圭景, 「痘疫有神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卷57, 人事篇1, 人事類2)(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종합DB 원문과 국역); 김동일 외, 『동의 학사전』(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여강출판사, 1989).

10) 李英澤, 「 우리나라 痘瘡에 대한 醫史學의 研究-우리나라 史書 및 古典醫書를 중심으로」, 『中央醫學』 38 : 5(중앙의학, 1980), 277-278쪽.

1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 3(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146-147쪽.

동북(東北) 지방을 거쳐, 서(西)로는 중국의 산동지방 및 서해 연안으로부터 황해를 건너 점차 전파되어 그 병독이 동남으로 만연하였다. 신라 성덕왕(聖德王) 36년(736)경에는 신라로부터 대마 일기(壹岐)를 거쳐 일본 대재부(大宰府) 서쪽인 축자(筑紫)에까지 유전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2)</sup>

두창의 발생시기에 관한 언급은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다. 1608년 허준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에는 “의혹입문의 글오드 igras 네는 항역 끄리 업더니 주적 내종과 진 처엄브터 인느니라”<sup>13)</sup>(현대어 풀이: 의학입문에 일렀으되 아주 옛날에는 마마가 없었는데 주나라 말엽과 진나라 초엽에 생겼다)라 하여 주(周)나라(기원전 1134-250) 말엽, 진(秦)나라(기원전 250-207) 초기를 잡고 있으니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기원전 250년경에 이미 두창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후한 때 장중경(張仲景)도 두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하다가 위(魏)나라(220-265) 때부터 언급했고, 수(隋)나라(581-618) 소원방(巢元方)에게도 두진에 대한 병론(病論)은 있으나 처방은 없었다. 당 고종(高宗, 618-626) 때 진인 손사막(孫思邈)이 비로소 처방전을 내놓았으니 두진은 후세에 생겨난 병이다.”<sup>14)</sup> 이 당시의 처방전도 “정강(靖康) 2년(1127) 봄, 궁성 있는 곳에 두창이 창궐하였는데, 어떤 이인(異人)이 있어 처방을 내렸기에 모름지기 두창이 생긴 자가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처방을 본받지 않을 수 없었다. 검은 콩 2합(合)을 볶고 감초 2촌(寸)을 노릿하게 하여 물 두 잔을 붓고 졸여서 수시로 마시라”는 처방전과<sup>15)</sup>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 12) 전종희, 「전날의 마마(痘瘡)와 그 예방」, 『醫史學』 2권 2호(大韓醫史學會, 1993), 122쪽.  
“두창은 인도를 발원지로 하여 서기 2, 3세기경에 중국으로 침입하였으리라는 것이 사가들의 일치되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에는 서기 4, 5세기경에 북으로는 중국의 동북인 요동을 거쳐 서로는 산동지방 및 서해연안으로부터 황해를 건너 전파되어 5, 6세기경 신라 때는 그 병독(病毒)이 남으로 만연되어 성덕왕 36년(737)경에는 대마도를 거쳐 일본 축자(筑紫, 현 九州北部)에까지 전파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金斗南, 「痘瘡正統考-朝鮮時代의 痘瘡對策과 장승」, 『한국민속학회』 14, 한국민속학회, 1981, 61쪽).
- 13) “醫學入門曰 太古無痘疹 周末秦初 乃有之.”(鄭鑄完, 『역주 諺解痘瘡集要』 卷上 痘瘡源委)
- 14) “後漢張仲景 亦不論之 自魏以來有之 而隋巢元方 雖有病論 無藥方 唐高宗時 孫真人思邈 始出治方 則乃後出之病也.”(李圭景, 痘疫有神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卷57, 人事篇 1, 人事類2)
- 15) “靖康二年春 京師疫氣大作 有異人書一方於齋舍 凡因疫發腫者服之 無不效其方 黑豆二合 炒令香熟 甘草二寸炙黃 以水二盞 煎其半 時時呷之.”(張杲 撰, 救疫神方, 『醫說』 卷3, 神方)

① “고금의감에 굴오더 빌열하여 알론 천 날 돈느니는 ㅋ장 등하고 알론 이튿날 돈느니도 쪘호 등하고 잠깐 열하고 사흘 후에 돈느니는 경하고 나흘 다센만이 모미 시거야 돈느니는 더욱 경하니라 도든 천 날로 이틀 사흘에 나르리야 보아흐로 ㅋ죽흐느니 밭에 도다야 다 돋는 작이라 대쇠 굳디 아니하고 불거 즈윤하고 굳티 두련하고 빙나 멀거하야 진쥬 ㅋ트니는 료흐니라”<sup>16)</sup>

(현대어 풀이: 고금의감에 일렀으되, 열이 나고 앓는 첫날에 돋는 이는 가장 심하고, 앓는 이튿날 돋는 이도 또한 심하고 잠깐 열이 나고, 사흘 뒤에 돋는 이는 가볍다. 나흘 뒷새 만에 몸이 식어야 돋는 이는 더욱 가볍다. 돋는 첫날로 이틀 시흘에 이르리야 바야흐로 가지런해진다. 밭에 돌아야 다 돋는 것이라. 대소가 같지 아니하고 붉으며 축축하고 끝이 뚜렷하고 빛이 나면서 진주 같은 이는 좋다.)

② 쪼 굴오더 느치 세낫치나 다솟 나치나 훅 혼 나치도 다 크고 검붉거 냉두 ㅋ트면 일후밀 굴오더 느는 흥역이라 훅느니 ㅋ장 경히 훅느니 훅 나만 돋고 노야 돋디 아닌느니라”<sup>17)</sup>

(현대어 풀이: 또 일렀으되 얼굴에 세 날이나 다섯 날 혹은 한 날만이 다 크고 검붉어 아픔이 심한 마마 같으면 이름을 일러 나는 마마라 한다. 가장 가벼운 것은 마마 하나만 돋고 다시 돋지 아니한다.)

두창이 오면 고열을 동반하고 얼굴을 중심으로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난알처럼 돋는다. 병세가 경미하여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자는 며칠 안에 반드시 죽는다. 치료를 하여 낫게 된 후에도 흔적이 검붉게 남으며 몇 해가 지나도 방법이 없다. “지난해 두창이 매우 위험했었는데 여염에서는 한집안에서 잇달아 죽은 경우도 있다니 놀라고 참담함을 느꼈다. 이번 아이의 누이도 두창으로 잊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위급해져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다행히도 다시 살아난 것은 허준의 공이니 공을 짚을 수 없다”는 내용<sup>18)</sup>을 보면 두창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두창의 위험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두창은 특징적

16) “古今醫鑑曰 發熱一日卽出痘者 太重 二日卽出痘者 亦重微微 發熱三日後乃出痘者 爲輕四五日 身涼乃見痘者 尤輕 自出痘一日至二三日 方齊 痘出至足 爲出齊 大小不等 紅潤圓頂光澤明淨如真珠者 吉。”(鄭鎬完, 앞의 책, 卷上 出痘三日)

17) “又曰 頭面上忽生三五箇 或只一箇 高大者 紫黑微似疔痘者 名曰飛痘 此最輕 或只此一痘 再不出痘。”(鄭鎬完, 위의 책, 卷上 出痘三日)

18) 『선조실록』 24년(1591) 1월 신축 첫 번째 기사.

인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전신 감염증이다. 잠복기간은 7~19일(대개 10~14일)이며, 권태감, 40°C에 이르는 고열, 심한 요통, 두통 그리고 구토와 복통 같은 전구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sup>19)</sup> 전염성도 강하고 치사율도 높아 여러 사람의 참혹한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치사율은 5~30%이니 유행과 병형(病型)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융합형은 50%, 출혈형은 80%이나 소두창(Alastrim, Variola minor virus)은 1% 미만이다. 또 환자의 연령과도 상관성이 높아 유약아(幼弱兒)와 연로자(年老者)는 예후(豫後)가 불량하여 합병증의 유무 또한 영향을 미친다.<sup>20)</sup> 이를 통해 볼 때 두창은 최근까지 치사율이 아주 높은 두려운 질병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III. 처용설화와 신라 〈처용가〉의 의미

“무릇 역질 따위에는 귀신이 있어서 여역(癘疫)·두역(痘疫)·진역(疹疫)의 모든 귀신이 무엇을 아는 듯이 전염시키고 있다. 아주 가깝게 통해 다니는 친척과 인당(姻黨)에는 번갈아가면서 반드시 전염되도록 한다”는 자료를<sup>21)</sup> 보면 지난날 민간에서는 질병이 귀신(악귀)으로 인해 생긴다는 의식이 팽배했음을 알 수 있다.

① 마마의 신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며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꺼리며 때때로 훤히 빛을 드러내어 숙연하게 사람을 놀라게 하니, 마치 그 사이에 주재(主宰)하는 신이 있는 것 같아 세속에서 크게 받들고 경건하게 섬기는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생후 여섯 달 만에 신의 은혜를 입고 보살핌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으니 13일 만에 공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다 끝났다. 이리하여 술과 밥으로 푸닥거리하여 전송하고, 이와 같은 글을 지었으니, 그 일은 세속을 떠났으나 그 뜻은 끌어다 예(禮)에 넣고 싶다. 신이 계신다면 오히려 밝게 들어주소서.<sup>22)</sup>

19) 오명돈, 「바이러스 질환 두창(천연두)」, 『감염학』(대한감염학회, 2007), 819~821쪽.

20) 洪基元, 「痘瘡의 痘學 및 臨床」, 『대한의학협회지』 8권 3호(대한의학협회, 1965), 201쪽.

21) “凡疫類 皆有鬼如癟及痘疹之屬 清染相傳 若有知覺行路偶值未必傳病 其坊近通問親戚姻黨遙染。”(이의, 『星湖集說』 권6, 萬物門)

22) “痘之有神 又其好潔而惡穢 喜靜而忌囂 往往發見光景 肅然動人 殆若有物宰乎其間 則世俗

위의 글에서도 마마의 신이 있어서 그 은혜와 보살핌으로 어린 딸이 살아났다 하였다. 없던 병이 생겨나고, 풍토와 기운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 하고, “어리석은 백성은 귀신에게 이리저리 빌기를 잘 하는데, 이는 무식한 짓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을 삼가서 귀신을 피하는 것만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sup>23)</sup>, 우리 조상들이 귀신의 존재와 그 위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 추고천황(推古天皇) 34년(626)에 일본에 흉년이 들자 삼한(三韓)에서 미속(米粟) 170소(艘)를 구해 싣고 오다가 낭화(浪華)에 정박할 때였다. 그때 배 안에 포창(庖瘡)을 앓는 세 소년이 있었는데, 한 소년은 노부(老夫)가, 또 한 소년은 부녀(婦女)가, 또 한 소년은 승도(僧徒)가 불어 있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문자 붙여 있던 역신이 “우리는 역신의 무리로 포창의 병을 맡았는데, 본디 우리도 이 병을 앓다가 죽어서 역신이 되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금년부터 이 병에 걸릴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4)</sup>

이 글에서는 두창을 옮기는 역신의 무리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하였다. 세 소년에게 각각 노부(老夫) · 부녀(婦女) · 승도(僧徒)가 불었다 했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왜 역신이 되었는지도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③ 옛날 젊은 과수(寡守)가 살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날마다 살이 빠져갔다. 이것을 보고 동네 할머니가 “너 무슨 일이 이시냐?” 하고 그 이유를 물으니 젊은 과수 하는 말이, “날마다 밤만 되면 텔벙거지 쓴 사람이 와서 자고 갑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거 생불 도채비 같구나”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물리칠 계략을 짰다.<sup>25)</sup>

---

之顛薦虔奉 久矣 余又安知其必無也 [...] 家有小女兒 生纖六月 蒙神之惠 既撫而壽之矣  
旬有三日 功成行滿 爰有酒食 以賽以餞 而爲之言如右 其事則因乎俗 其義則欲引而進之於  
禮也 神而在者 尚明聽之。”(『麗韓十家文鈔』 卷9, 途痘神文)

23) “近世 又有疹疫 其盛行不滿百年矣 風氣之變 自然之理也 何足恠乎 凡疫類 皆有鬼如癟及  
痘疹之屬 清染相傳 若有知覺行路偶值未必傳病 其坊近通間親戚姻黨遙染 如神鬼之情狀  
大抵與人相近也 以此愚珉多行祈禱 此甚無謂 而要在謹以避之耳。”(李瀨, 『星湖僕說』 권6,  
萬物門)

24) “惟和漢三才圖會曰 推古天皇三十四年 日本穀不實 故三韓調進米粟百七十艘 船止於浪華  
船中有三少年憂庖瘡者 一人則老夫添 一人則婦女添 一人則僧添居 不知孰人 國人問其名  
添居者答曰 予等疫神徒 司庖瘡之病 予等亦元依此病死成疫神 此歲國人 始憂庖瘡。”(李圭  
景, 「痘疫有神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卷57, 人事篇1, 人事類2)

25) 玄容駿, 『學術調查報告書』 8집-涯月邑 郭支里 · 光令里(제주대학교 국어국문 국어교육

위의 글도 병을 옮기는 귀신이 젊은 과수에게 붙어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그렸는데, 과수의 눈에는 도깨비가 텔병거지를 쓴 사람으로 보였다 하였다. 무속신화 〈영감본풀이〉에도 “옛날 어떤 과부가 사는데, 전과 달리 얼굴이 파리하게 말라 드러눕게 되었다. 이상히 여긴 이웃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과부가 말하기를, 근간 이상한 남자가 같이 살자고 졸라 밤마다 와서 잠자리를 같이하고 간다고 하였다. 다음날 밤에 숨어 살펴보았더니 도깨비신이 와서 교구(交媾)하고 밝을 네에 떠나는 것이었다”(濟州市 老衡洞 女 高氏 談)는<sup>26)</sup> 이야기가 있어 질병이 찾아드는 상황을 도깨비와 여인의 교구로 표현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처용가〉에서 역신이 처용 처의 잠자리에 든 일을 실제 남녀의 범간(犯姦)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또 “두창이 처음 발열(發熱)할 무렵에 그 부모나 유모(乳母)의 꿈속에 색다른 사람을 보되, 늙은 여인이 보이면 길하고 젊은 여인이 보이면 흥하고, 승도(僧徒)나 선비가 보이면 중간이 되는데, 그들이 다 역신이다”<sup>27)</sup>라고 하여 역신이 늙은 여인, 젊은 여인, 승도 등 여러 모습으로 현현(顯現)한다 하였으니 처용의 처에게 깃든 역신을 정황으로만 파악하여 남녀 간의 범간이라 결론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신이 그녀를 흡모하여 그녀의 잠자리에 몰래 머물렀다”라고 한 것은 역신, 즉 ‘급성발진성 피부질환 두창을 옮기는 악신(惡神)’이 처용의 처에게 두창을 옮기는 상황을 매우 현실감 강한 실제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용이 두창을 옮기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현강왕(憲康王)이 포석정으로 행차하니 남산(南山)의 신이 어전에서 춤을 추었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고 왕에게만 보였다. 그래서 왕이 몸소 춤을 추어 형상을 보였다”<sup>28)</sup>에서 왕의 눈에만 남산 신이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의 신통력(神通力)이다.

〈처용가〉와 관련 설화에서 또 논란이 되는 대목은 역신이 처용의 처를 ‘절여지숙(竊與之宿)’한 데 대하여 처용이 ‘창가작무이퇴(唱歌作舞

과, 1984), 128쪽.

26)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집문당, 1992), 400쪽.

27) “痘病 初發熱時 有父母或乳母夢見異人 而見翁嫗爲吉 壯女爲凶 僧及士爲中 蓋此疫神也云.”(李圭景, 앞의 책)

28) “又幸鮑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像示之.”  
(『三國遺事』卷2, 「紀異」, 處容郎 望海寺)

而退)'한 일이다. 노래의 다른 구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7·8구의 '본디 내해다마론 / 알아들 엇디흐릿고(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그 간극 또한 넓다.

먼저 이를 체념, 패배, 인욕(忍辱), 관용 등으로 읽는 견해가 통설을 이루었다. "엇디흐릿고"는 무나(無奈)-체념, 무방(無妨)-달관의 뜻으로 경정(逕庭)이 있다", "체념적이면서도 함축이 있는 유구한 정서"<sup>29)</sup>, "신과 신 사이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역신을 관대히 용서함으로써 범한 자를 감복케 했다"<sup>30)</sup>, "체념적 언사는 결코 체념이 아니며 힘 있는 자의 관용이고, 그 관용은 역신을 영구히 제압하게 되는 것이다"<sup>31)</sup>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 부분을 "본시 내해인 데야 / 빼다니 무슨 말고"로 읽고, 단념이 아니라 항거이고, 역신을 책망하고, 구축(驅逐)을 위해 위협하는 뜻으로<sup>32)</sup> 보기도 한다.

④ 〈처용가〉의 해독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마지막 1행이다. 종래의 해독은 이 마지막 1행이 처용의 체념적 태도를 표시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원시 종교에 대한 약간의 조예를 가지고 있는 이라면 악역신(惡疫神)을 쫓는 처용에 대하여 '체념' 운운이 얼마나 당치 않은 것인가를 의심해봄 직하다. 『삼국유사』의 '가무이퇴(歌舞而退)'는 처용이 물러났다는 과거의 해석과는 반대로 "처용이 가무하여 물리쳤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이 부분을 '아스를 엊디흐릿고'로 읽어 "빼앗음을 어찌 하릿고", 즉 "어찌 (감히) 빼앗음을 하릿고"로 해석된다.<sup>33)</sup>

이 책의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 부분이 빠졌지만, 이후에도 여러 논자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해석이 역신의 굴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유화(宥和)나 관대(寬待) 또는 초탈의 경지 등으로 본다면 다음에 역신의 굴복과 연결이 되지

29) 梁柱東, 訂補版 『古歌研究』(博文書館, 1960), 431쪽; 梁柱東, 「古歌箋 筏疑」, 『國學研究論叢』(乙酉文化社, 1962), 101쪽.

30) 이완형, 「處容郎 望海寺'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기능」, 『處容研究全集』 II 문학 2(역학, 2005), 649쪽.

31) 윤영옥, 「처용가」, 『處容研究全集』 IV 종합(역학, 2005), 276쪽.

32) 정렬모, 『향가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180쪽.

33) 李基文, 『國語史概說』(民衆書館, 1961), 65-66쪽.

않는다. 이에 7·8구는 사리(事理)로써 역신을 타이름과 동시에 준엄한 문책<sup>34)</sup>으로 보기도 한다. 그리고 ‘퇴(退)’를 처용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자동사로 과악하지 않고 “역신을 물리쳤다”로 해석하기도 한다.<sup>35)</sup> “불시의 침입자인 역신에 대한, 분노에 찬 폭로와 풍자”<sup>36)</sup>, “결국 네 것도 될 수 없고 죽을 뿐인데, 죄를 인정하고 물러나라. 역신에게 의문의 형식으로 보내는 위협”<sup>37)</sup>, “위압적인 호령을 할 수 있는 처용이 ‘내 아내를 도로 내놓고 썩 물리가거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한 위협적인 언사”<sup>38)</sup>로 보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일관(日官)이 신의 역할을 맡고, 처용은 ‘처를 빼앗겼으니 어떡하면 좋겠느냐’며 되찾아 올 방법을 묻는 축원”<sup>39)</sup>, “은밀하고 폐쇄적인 밀실의 창을 열고 광장의 환한 달 아래서 펼치는 축제이자 향연”이라 하여 유쾌한 웃음과 긍정의 원리<sup>40)</sup>, “당위성과 힘을 가진 처용이 범간자(犯姦者)에게 보이는 연민과 측은한 마음”<sup>41)</sup>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함경도 재가승(在家僧)이나 제주도의 풍속을 들어 “이객(異客)에게 자기 처를 제공하는 습속의 구체적인 표현”<sup>42)</sup>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불교적인 ‘해탈과 보시(布施)’로 보는 시각도 여럿 제시된 바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6바라밀 중의 하나인 보시의 행을 주상(住相) 없이 실천한 것이다. 빼앗긴 자기의 처를 체념하는 듯, 사랑하는 자기의 처까지도 걸림없이 역신에게 시여(施與)함으로써 그를 완전 감복시킨다.”<sup>43)</sup> “내 것’이라는 ‘집(軄)’을 벼린 상태, 집착함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가무자퇴(歌舞自退)로써 사심(捨心)을 성취하려 했다”<sup>44)</sup>, “처용은 용자(龍子)이기

34) 徐大錫, 「處容歌의 巫俗의 考察」, 『韓國學論集』 2(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5), 59쪽, 65쪽.

35) 최용수, 「〈처용가〉에 대하여」, 『處容研究全集』 II 문학1(역학, 2005), 206쪽.

36)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217-220쪽.

37) 박인희, 「處容의 實體와 〈處容歌〉」, 『處容研究全集』 IV 종합(역학, 2005), 786쪽.

38) 박진태, 「處容歌의 背景과 意味」, 『處容研究全集』 IV 종합(역학, 2005), 248-249쪽.

39) 민궁기, 「처용가의 생성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고전문학연구』 8(한국고전문학회, 1993), 107쪽.

40) 이승남, 「〈처용가〉의 시적 정서와 서사물의 구조」, 『處容研究全集』 II 문학2(역학, 2005), 658-659쪽, 662쪽.

41) 楊熙喆, 『 삼국유사 향가연구』(태학사, 1997), 183-184쪽.

42) 金東旭, 「處容歌 研究」, 『韓國歌謡의 研究』(乙酉文化社, 1961), 131쪽.

43) 金鍾雨, 『鄉歌文學研究』(二友出版社, 1983), 157-158쪽; 안태욱, 「處容說話의 佛教的研究」, 『處容研究全集』 II 문학1(역학, 2005), 421쪽.

44) 황태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일지사, 2001), 576쪽.

에 세속적 소유욕을 극복하고, 아내를 역신에게 내어줄 수 있는 금도(襟度)의 자세를 가졌다. 앞에서의 대결을 포기하고 환락에 병든 아내와 역신을 탐락(耽樂)에 자심(滋甚)하도록 방치해둠으로써 자각에 의한 새로운 출발, 발전적 변신을 이끌려고 하였다”<sup>45)</sup>는 관점은 제시하기도 한다.

〈처용가〉의 7·8연을 분노나 질책으로 보면, “공이 노함을 보이지 않으시니 느껴 아름답게 여겨(公不見怒 感而美之)”와 “네가 어찌 감히 빼앗을 수 있겠느냐”는 문맥상 모순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sup>46)</sup> 탐락이 자심하도록 방치한 후, 자각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시선은 상황 전환의 계기나 시점을 설명해내기 어렵다. 집착을 벗고 초월한 데서 나온 관용이 라고 보는 관점이 가장 적절하지만 이 이론은 이론적인 해석을 넘어 ‘처용랑 망해사’의 서사 문맥 속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다. 강한 분노와 공격만이 역신의 굴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가(巫歌) “가매문을 비시고 각시손님을 보더니마는 / 각시손님네요 / 가매 안에 있는 각시손님을 / 내 자는 방안에다가 하리밤만 수청(守廳)들 며년 / 승겨 없이 건네주오리다. / 이렇게 말을 하니 / 호반손님 시준손님 혜통에 본(憤)을 내야 / 사공사람으로 거짓 성명 물어넣고 / 사공을 목을 쳐서 의주 압록강 던져버리고”<sup>47)</sup>에는 백사공이 중국에서 건너오는 질병인 ‘각시손님(두창)’에게 하룻밤 수청을 들어주면 배를 내어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두창신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처용 또한 역신이 자신의 처를 ‘절여지숙(竊與之宿)’한 데 대해서도 분노하고 공격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처용은 ‘창가작무이퇴(唱歌作舞而退)’했으니 일단 인간적 감정에 따른 반응은 아닌 셈이다.

두창은 문헌적으로나 임상, 경험 등으로나 이미 알려진 질병이므로 처용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창에 대한 질병의 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을 살핀 후에 〈처용가〉의 성격을 논할 필요가 있다.

⑤ 속칭 두신(痘神)을 마마라 하며, 마마는 존칭으로서 낭낭(娘娘)과 같다. 세속에

45) 김승찬, 『신라향가론』(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306쪽; 김승찬, 「處容說話와 그 歌謡의 研究」, 『處容研究全集』 II 문학1(역학, 2005), 179쪽.

46) 楊熙喆, 『삼국유사 향가연구』(태학사, 1997), 179쪽.

47) 金泰坤, 앞의 책, 345-349쪽.

서는 두신이 강남에서 왔다 하여 '손님'별이라 하기도 한다. 어린아이가 천두(天痘)를 앓으면 종이 깃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강남호구별성사령기(江南戶口別星司令旗)'라는 글을 써서 문 앞에 꽂아 천연두를 앓는 집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십여 일이 지나서 음(瘀)이 떨어지면 여무(女巫)를 불러 두신을 보내는 배송 굿을 한다. 짚으로 만든 말과 마부를 만들고 무녀는 마부타령을 부른다. 이때 관중들은 돈을 내서 무녀에게 준다.<sup>48)</sup>

⑥ 조선 사람들은 이 병을 '마마'라 부르는 귀신이 애들에게 들어가 중상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병을 일으키는 귀신에게 제사 등의 의식을 치렀다. 귀신을 위로하고 아이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음식, 꽃 및 돈을 바치기도 하였다. 며칠 후 귀신이 이런 의식에 만족해하여 빠져나가면 아이는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집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인데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 조선에 찾아온다고 믿었다.<sup>49)</sup>

이 자료를 보면, 두창은 귀신이 일으키고 중국에서 건너왔으며, 특별한 신으로 여겨 받들이 모셨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호귀마마(胡鬼媽媽)'라 부르거나 '손님 들었다客至'고 말하고, 영남에서 서신(西神)이라 칭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sup>50)</sup> "신명(神名)을 마마라고 부른다. 이 병을 손님이라 칭하고 매우 정중하게 대접하고 냉수를 떼 가지고 높은 곳이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한다. 욕하지 말고 세탁하지 말고 조수(鳥獸)를 죽이지 말고 자택은 물론 이웃집에서도 바늘을 사용하지 않아야 천연두의 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sup>51)</sup>고 여겼으며, 『다산필담』에 임금이 다니는 언덕길에 황토를 펴는데, 어떤 이는 태양의 황도(黃道)를 상징한다고 한다. 왕명을 받든 사신이 군현에 들어올 때도 길 양쪽에 황토를 쏟아놓는다. 무당이 두창의 귀신을 보낸다고 할 때에도 또한 이 법을 쓰는데, 그 이름을 '별성(別星)'이라 하기 때문이라" <sup>52)</sup> 하였으니 두창은 병을

48) "俗稱痘神曰媽媽 媽媽者尊稱 卽如娘娘也 俗傳痘神自江南來 故亦稱 손님(SonNim)譯義星使 兒染天痘則以紙作旗 旗面書曰江南戶口別星司令旗 而挿識痘家 患痘十餘日始落疥 於是用女巫送痘神 名曰拜送 備芻馬有馬夫牽之 巫唱馬夫打令 歌曲名目打令 觀廳者擲錢以賞女巫."(이능화,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181쪽)

49) 朴瀅雨, 『濟衆院』(몸과 마음, 2002), 238쪽.

50) "我東則痘神 曰胡鬼媽媽 又稱客至 嶺南稱西神."(李圭景, 「痘疫有神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卷57, 人事篇1, 人事類2).

51) 村山智順 저, 김희경 역, 『조선의 귀신』(동문선, 1990), 186쪽.

52) "茶山筆談云 御路之 脊鋪以黃土 未詳所始 或云象太陽黃道 不知然否 奉使臣入郡縣 另以

읊기는 악신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왕명을 받드는 사신처럼 고귀하게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두창의 신을 성신(聖神)<sup>53)</sup> 혹은 차원이 다른 천신(天神)<sup>54)</sup>이라 일컬어 대우하여 부른 예도 있다.

두창에 대해서는 많은 금기도 뒤따랐다.

⑦ 득호방의 골오디 흉역할 제 여러 가짓 더러운 내며 봇단근 기름니며 아비  
엄이 방수기며 머리 ㅋ마 벗는 일들흘 ㅋ장 괴휘흐라 분디 몯 ㅎ여셔 촉범흐면  
독고 심장의 드러 답답흐여 죽고 부른 후에 촉범흐면 헌듸 알끼를 벼히는 듯  
하야 겹고 준므로느니 ㅋ장 경계호미 맛당흐니라.<sup>55)</sup>

⑧ 초우세 글오덕 항역흘 제 겨드랑의 암내 나느니며 방 안해 남진겨집 음욕엔  
내며 겨집의 월슈(후) 내며 술 취흔 내며 마늘 파 머근 더러운 내며 석유황  
모고 업시 흐는 집약 내며 혼글 그튼 비린내 누른내 머리 터럭 순 내들흘 깃가이  
마티디 말라 56)

⑦을 보면, 두창에 걸리면 여러 가지 더러운 냄새, 볶고 달이는 기름 냄새, 방사(房事)도 피하고, 머리에 빗질하기 등도 삼갔다. 아직 봇지 않았는데 나쁜 기운을 마주하면 독기가 심장에 들어가 답답하여 죽는다고 여겼고, 불어 나온 뒤에 촉범하면 헌데 앓기를 칼로 살을 베는 듯하고 검고 짓무르는 것을 경계하였다. ⑧에서는 겨드랑이 암내, 부인의 달거리내, 술 취한 냄새, 마늘과 파를 먹은 냄새, 석유황으로 모기 없이 하는 약 냄새, 한결같은 비린내, 누린내며 머리 터럭 사르는 내 등을 삼갔다. 이는 두창이 사람의 기 기운데 향내를 맡으면 퍼져 다닌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밖에서 온 사람, 동냥하러 온 중, 도사들의 경읽기와 오고 감, 더러운 냄새는 물론 침향(沈香)과 백단향(白檀香), 강진향(降真香), 유향(乳香), 용뇌(龍腦)와 사향(麝香) 등까지도 일절 피하라

黃土一畚瀉於兩旁 亦自五里亭抵館舍而已 巫送痘鬼亦用此法 以其名別星也。”(丁若鏞,『牧民心書』卷12,6條 工典,5條 道路)

53) “謹告于痘神榻下 惟我靈籙 称云聖神 未過望余 聖神來臨 廊兒先司 內外仰思 稚女有疵 子爲俱知。”(三木榮,《朝鮮醫學史及疾病史》中「朝鮮疾病史」,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1963, 41等)

54) 村山智順 저, 金禧慶 역, 『朝鮮의 鬼神』(東文選, 1990), 302쪽.

55) “得效方曰 痘瘍 切忌諸般臭穢煎炒油煙 父母行房 疏頭等 觸犯未發而觸 則毒氣入心悶亂而死 已發而觸 則瘡痛如割 以至黑爛切宜深戒.”(鄭鎬完, 𩔗의 책, 卷下 禁忌).

56) “初虞世曰 痘瘍勿親近狐臭漏液 房中淫慾 及婦人月候 醉酒葷穢硫黃蚊藥 一切腥臊燒頭髮等氣。”(鄭鎬完, 高의 책, 卷下 禁忌)

하였고, 마마의 딱지가 막 떨어져 아직 살이 연할 때 씻기기를 서두르지 말라 하였다.<sup>57)</sup> 의방에 따르면 “제사, 범염(犯染, 초상집 출입), 연회(宴會), 방사(房事), 외인출입을 꺼리고 유밀(油蜜)과 성전(腥羶: 노린내 나는 짐승, 누리고 비린 냄새), 오예(汚穢) 등도 꺼렸다.”<sup>58)</sup>

⑨ 병진년(1556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역기(疫氣)가 촌마을에 연달아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홍역이라더니 자세히 보니 두창이었다네. 먼 곳으로부터 점차 인근에 퍼졌는데, 먼저 아이들 때문에 두렵도다. 큰일로는 선조께 제사도 중지하고, 작은 일로는 길쌈일도 그만두었네.<sup>59)</sup>

⑩ “3월, 임금이 인순왕후의 담제(禫祭)를 지내려 할 때 마침 왕자가 역질(疫疾)을 앓았다. 그런데 시속에서는 병중에 제사 지내는 것을 꺼려했으므로 이에 임금은 전염병을 핑계하면서 ‘천재(天災)가 이와 같으니 직접 제사 지낼 수가 없다’ 하였다. 대신들과 근신들, 그리고 양사(兩司)가 모두 이에 반대하면서 천재에 근신하는 일과 제사 지내는 일은 상호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천재가 어찌 전하의 제사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이렇게 여러 날을 주장하였지만 임금은 끝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sup>60)</sup>

두창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선조께 제사 지내는 일도 그만두고 길쌈 등의 일상사도 폐하였다. ⑩에는 왕자가 두창에 걸리니 임금이 유교적 예법을 강조하는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 지내는 일을 꺼려하고 있다. 16세기 이문건(李文健)의 경우 외조모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집에 두창이 돌고 역신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바람에 남의 집을 빌려서 몰래 제사를 올린 일<sup>61)</sup>도 있었다. 울곡이 해주(海州) 향약 과실상규 6조에 “이단(異端, 유교 이외의 도)을 배척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한 집안에서 음사(淫祀, 내력이 바르지 않은 귀신을 위하는 곳)를 숭상하는 일을 그치지 않거나 술가(術家)의 풍수설에 혹하여

57) 위의 책, 321~322쪽.

58) “俗 重痘瘡神 其禁忌大要曰 祭祀犯染宴會房事外人 及油蜜腥羶汚穢等臭 此則 載於醫方.” (魚叔權, 『稗官雜記』 권2; 『大東野乘』 卷4)

59) “丙辰年春夏 疫氣連村落 初聞輕疹瘡 諸審乃痘疫 自遠漸近隣 爲兒先惕若 大事停祭先 小務廢織作.” (李文健 저, 이상주 역, 「行疫嘆」, 『養兒錄』, 태학사, 1997, 75쪽)

60) 『石潭日記』 下, 萬曆5年 丁丑.

61) “二十五日甲辰 晴 外祖妣忌日 祭行于申溫家 早往參之 權常亦來參 但溫家不送疫神云 借 隣家以行 行畢移坐溫家餽之 隣翁金永昌亦來參.” (李文健,嘉靖16 丁酉 3월 25일, 『默齋日記』 1册, 國史編纂委員會, 1998, 94쪽)

조상의 분묘를 망령되게 옮기고, 기일이 지나도록 장사 지내지 않거나 진창(疹瘡)으로 인하여 제사를 폐하는 것이다”<sup>62)</sup>라고 두창으로 인하여 제사를 폐하는 일을 금지하는 항목까지 만들 정도로 두창 때문에 제사를 폐하는 일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후(后)께서 매번 우리 전하께서 두창을 겪지 않으셨다 하여 보호함이 더욱 지극하였는데, 계해년(1683) 10월 성상께서 감기가 들어, 이를 만에 진두(疹痘)가 비로소 나타나니, 후께서 크게 놀라고 근심하시어 비저(匕箸)를 줄이시고 무오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목욕재계하여 대신해줄 것을 청하셨다”<sup>63)</sup>에도 두창에 대한 매우 경건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⑪ 어린이가 두역을 앓게 되면 깨끗한 소반 위에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고 솔에다 밥을 짓고 시루에 떡을 써서 바치며 기도하고, 두역이 끝나면 지번(紙幡)·유마(粃馬)에 두드리고 바칠 물건을 마련하여 전송하는데 이를 배송(拜送)이라 한다. 두역이 처음 시작되면 일체의 동작과 나란히 자는 일 등 구애받고 꺼려야 하는 일이 많다.<sup>64)</sup>

근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두창 환자가 있었고, 몇 년에 한 번씩은 유행하였다. 8~10세가 넘은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은 반흔(瘢痕)을 갖고 있었으며, 두창에 걸리지 않은 아이는 아예 가족으로 치지 않는 부모도 있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았다. 에비슨이 본 환자 중에는 11명의 자녀를 모두 천연두로 잃은 부인도 있었다 한다.<sup>6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창에 걸려 사경을 헤매도 조선인은 의사를 찾지 않았다. 에비슨이 조선에 와서 첫 4년 동안 천연두 환자 때문에 왕진을 간 경우는 두 번밖에 없었다 한다.<sup>66)</sup> 두창에 걸려도 고작 정화수를 떠놓고 떡을 바치며 기도만 하였다. “세속에서는 어린아이가 두역을 하면, 신을 신봉하면서 기획(忌諱)하고 약도 쓰지 않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많은 인명이 요절하여

62) “六曰 不斥異端 謂一家崇尚淫祀 而不之禁 或惑於術家風水之說 妄移葬先墓 及過期不葬 及因瘡廢祀。”(李珥, 海州鄉約 增損呂氏鄉約文 過失相規, 『栗谷集』 雜著)

63) 『숙종실록』 9년(1683) 12월 을축.

64) “我東則痘神 曰胡鬼媽媽 又稱客至 嶺南稱西神 兒痘 則取淨盤 設井華水一碗 每日餚飯餽餅以供禱焉 及經痘終 盛其紙幡 牀馬 捏載享神之物以餞之 名曰拜送 其始疫時多拘忌。”(李圭景, 앞의 글)

65) 朴瀟雨, 『濟衆院』(몸과 마음, 2002), 238쪽.

66) 위의 책, 238쪽.

애석하기 이를 데가 없다”<sup>67)</sup>라며 민간의 의료행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기록도 있다. 이렇듯 두창은 두신(痘神)의 명에 의해서 생긴 병이므로 의약을 끓고, 오직 순종의 뜻을 표하여 신의 노여움을 풀고 용서를 빌며, 청수 또는 어육이 섞이지 않은 소찬으로 향응을 베풀어 위로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⑫ 각국의 손님신들이 조선에 구경하러 나온다. 의주 압록강에 이르러 뱃사공을 불러대니 세 번 만에야 나타난 뱃사공이 하는 말이 배가 한 척도 없다고 한다. 손님신들이 벼들잎을 훑어 배를 만들기 시작하니 도사공이 비로소 손님신임을 알아보고 목욕재계한 후에 제상을 차려놓고 살려달라고 빈다. 손님신들이 정성에 감복하여 방방곡곡을 다니며 영험한 일들을 베풀어주고 떠난다(부여지역무가 7 개요).<sup>68)</sup>

⑬ 손님네 대접을 하는데/방아풀을 팔아서/중쌀애기를 받아서 아침이며 밥적계요/상쌀애가 받아서 지득이며 촉촉개요/이렇게 절제를 해도 성의껏 대접을 하니/손님으는 저 노구 할머니 성의껏 대접하는지 안 하는지/벌써 알고 있는가불네 라/성의껏 이렇게 대접을 착실히 하니/손님네가 거기서 사흘을 묵어서/사흘 만에 떠나는데…….<sup>69)</sup>

⑫에서는 뱃사공이 두창(손님)신이 온 것을 알고 목욕재계한 후에 제상을 차려놓고 살려달라고 빌자 두창신이 그 정성에 감복하여 방방곡곡을 다니며 영험한 일들을 베풀어주고 떠났다 하였다. ⑬에서는 늙은 할미가 가난한 살림에 손님 대접을 위해 방아풀까지 팔아서 극진히 모시니 두창은 사흘 만에 떠났다. “노구할매가 / 소금아밥에라도 / 싸레기 밥에 / 싸레기죽에다 / 이렇게/대우를하니 / 그래도 / 고맙다고 / 백번천 번 / 치사를 하니”<sup>70)</sup>, “대양푼에 갈비찜에 소양푼에 영계(軟鷄)찜에 / 네에 가서 욕심 많아 받으시던 내 별장님 아니시리 / 아무쪼록 거문 땅에 혼배서 오는 길에 명을 주구 가는 길에 복을 주구 / 너의 수원성추(所願成就) 무리 거들냥 장군 별장님이 다 도와주신다”<sup>71)</sup>에도 지극정성으로 모시니 두창

67) “世俗以兒疫帶神多尊奉之 忌諱之 只事祈禱 不用藥石.”(柳夢寅, 『於于野談』)

68) 金泰坤, 『韓國巫歌集』4(集文堂, 1980), 239-240쪽.

69) 金泰坤, 『韓國巫歌集』1(集文堂, 1971), 351쪽.

70) 김유선 구연, 임재해 채록, 경상북도 월성군 감포읍 무가2, 손님굿; 조동일 · 임재해, 『韓國口碑文學大系』7-2 慶州 月城(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806-807쪽.

71) 金泰坤, 앞의 책(1971), 33쪽.

신이 도리어 갖가지 일을 도와주고 감사를 표하며 떠난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한 손님신이 서울 김 정승 집에서는 천대를 받고, 이 정승 집에서는 용승한 대접을 받는다. 이에 이 정승 집에는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 김 정승 집을 찾아서는 정승의 아들 철원이를 병신을 만든 다음 급기야 죽여버리고 떠난다는 무가가 전한다.<sup>72)</sup> “젊은 분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 모도 조카네고 아래 키울 때는 / 아무리 지금 세월이 약이 좋고 주사가 좋다 해도 / 손님네를 잘 위해야지 / 손님네 잘못 빼끌어노면 / 참 자손들을 꼼보도 맨들 수 있고 / 병신도 맨들 수 있고 / 눈도 또 새따먹게도 맨드고 코빙신도 입비뚤이도 맨들고 / 뱅신을 모도 맨들어 노니”라고<sup>73)</sup> 한 것도 두창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간에서는 두창신을 화나게 하면 처절한 복수극을 펼치므로 절대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질병 의식이 팽배하였다. 이에 두창신을 아예 극진히 대접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살려달라고 저자세로 빌어야만 무자비한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다. 궁중과 민간에서 숙종 때 세자가 두창을 앓자 신증(神餌)을 설치하고, 두창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마떡을 바친 일을 보아도 두창신을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신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지붕에 강남별성(江南別星)이라고 쓴 깃발을 올려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고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하였다. 잔치를 한다거나 집에 사람을 불러들인다거나 중이나 무당을 불러들여 다른 신을 모시면 두신을 성나게 할 것이라고 여겼다.<sup>74)</sup>

〈처용가〉 관련 설화에서 역신이 “몰래 그녀(처용 처)의 잠자리에 들었다(竊與之宿)”고 한 것은 처용의 아내에게 두창의 병증이 나타났음을 뜻하고, 이에 처용이 ‘창가작무이퇴(唱歌作舞而退)’한 것은 두창신을 대접해야 한다는 민간의 질병 인식에 따라 금기를 지킨 근신(謹慎)행위로 보인다. 앞서 살폈듯이 두창이 찾아들면, 중국 강남국(江南國)에서 손님이 오거나 역신이 저주를 내린 것으로 믿었다. 이에 따라 최상의 경의와 근신을 표하지 않으면 두신의 노여움을 사서 환자가 중태에 빠지거나

72) 金泰坤, 강릉지역무가 2 개요, 앞의 책(1980), 237-247쪽.

73) 김유선 구연, 임재해 채록, 앞의 책, 795쪽.

74) 村山智順 저, 金禧慶 역, 『朝鮮의 鬼神』(東文選, 1990), 300쪽.

죽게 되고 낫더라도 큰 마마자국이 남는다고 믿었다. 심지어 두창으로 사망한 시체는 호구별성(戸口別星) 귀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며 사체를 풍장(風葬)하기도 하였다.<sup>75)</sup> 이 같은 생각 때문에 환자가 있는 곳에 출입할 때는 일일이 이름을 대고 떠들썩한 것, 좋은 웃, 맛있는 음식도 다 삼가고 청소나 부부 동침도 의약을 투입하거나 소독하는 일도 일절 금하였다. 처용이 두창의 징후를 보이는 아내를 두고 물러나 노래 부르고 춤을 춘 것은 공격 본능이 강한 두창신 앞에서 일체의 행동을 삼가고 금기에 충실하면서 질병이 스스로 물러가주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외기(畏忌)’<sup>76)</sup>나 ‘외신(畏慎)’, 혹은 ‘기휘(忌諱)’라고 규정함이 합당하다.

〈처용가〉의 구절 7·8구의 “본디 내 것이지만 / 빼앗긴 걸 어찌 하리 오”(本矣吾下是如馬於隱 奪叱良乙何如爲理古)는 두창신을 대접하는 말로서, ‘내게 아내가 소중하지만 역신의 뜻을 거스를 의사는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에게는 역신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음을 밝히어 역신의 경계심을 늦추고자 한 언술이다. 처용의 입장에서는 “두창신에게 공손히 대하면 재앙과 병마가 피해 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한 것인지만, 두창신의 입장에서는 처용의 온건한 대응이 ‘인격적 덕망, 관용·포용’<sup>77)</sup>으로 보였을 수 있다. 춤과 노래를 통하여, 두창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즐겁게 함으로써 아내의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처용무를 ‘신을 즐겁게 하려는 오신(娛神)’의 일종이라 볼 수도 있는데, 처용무가 황(黃)을 중심으로 좌우 청·홍·흑·백의 오방 처용무로써 통일성과 안정성, 균형 잡힌 조형감을 추구하고, 춤의 대형이 동서남북의 방향과 봄·여름·가을·겨울의 자연 순리에 따르는 것도<sup>78)</sup> 같은 원인으로 보인다.

결국 역신은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담은 처용의 춤과

75) 위의 책, 288쪽.

76) “洪奉翊順 忠正公子也 常與李商書淳對碁李輸骨董書畫殆盡 以所寶玄鶴琴爲孤注 洪賭得之 李取其琴以與曰 此琴吾家青氈也 相傳幾二百年 物既久頗有神 公謹藏之 李特以洪性多畏忌爲之戲耳 一日夜極寒 琴絃凍絕 琎然而響 忽念有神之語急炷燈用桃 荊亂擊琴 遭擊俞響 則愈惑喚 婦僕相守。”(李齊賢, 『益齋亂藁』 卷10, 轉翁碑說 前集 2)

77) 김학성, 「〈처용가〉와 관련 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집 문당, 1997), 247쪽.

78) 황경숙·배성한, 「음양오행으로 본 처용무의 구성 원리」, 『음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7권 3호(한국체육철학회, 2009), 208-209쪽.

노래, 처용의 온건한 태도에 감동하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처용에게 문신(門神)의 권위까지 부여하고 물러난다. “쏘 굴오듸 누치 세낫치나 다섯 나치나 혹 혼 나치도 다 크고 검붉어 뎅두 그튼면 일후밀 굴호듸 누는 흥역이라 혼 누니 그장 경히 혼 누니 혹 혼 나만 돋고 노야 돋디 아닌 누니라”<sup>79)</sup>하여 두창도 그 정도에 따라 위중함의 경중이 다른데, 처용 처가 가벼운 두창의 징후를 보이다 치유된 것을 두고 역신이 굴복하여 물러난 것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역신에 대한 선부른 공격·축귀(逐鬼)도, 일정한 의료행위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처용은 가무를 선택하였다. 어떤 종류의 약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쉽게 나을 수 있다고 믿었다. 혹시 약을 쓰면 ‘고귀한 손님’이 노하여 환자의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라”<sup>80)</sup>고 여겼다. 처용의 춤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무서운 전염병, 두창에 아내가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니 체념도 관용도 초월도 쉽지 않다. 처에게 더 큰 재앙이 닥칠까 봐 분노하고 공격할 수도 없으니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용의 춤은 다급한 상황에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는 엄숙하고 숙연한 행위이다. “11월 17일 깊은 밤에 공익(功益)이 부르는 신라〈처용가〉를 들으니 성조(聲調)에 비장(悲壯)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sup>81)</sup>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애절한 상황을 일컬은 것이 아닐까 싶다. 춤은 자체로 극도의 절제이면서 신과 통하는 행위이니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역신에게 전해져서 역신 스스로 “감동을 느끼고 아름답게 여기어(感而美之)” 끓어앉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후에 처용무가 “대지 위에서 자연 만물이 생장(生長)하였다가 수장(收藏)되는 순환의 원리를 담은 춤으로 거듭나고, 사계절의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과 당당함, 그리고 평온과 조화,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을 암시하며 기후가 적절한 태평한 세상에서는 농사와 풍작을 기대하는”<sup>82)</sup> 춤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은 역신이 질병을

79) “또 일렀으되 얼굴에 세 날이나 다섯 날 혹은 한 날만이 크고 검붉어 아픔이 심한 마마 같으면 이름을 일러 나는 마마라 한다. 가장 가벼운 것은 마마 하나만 돋고 다시 돋지 아니한다(又曰 頭面上忽生三五箇 或只一箇 高大者紫黑 儼似疔瘡者 名曰飛痘 此最輕 或只此一痘 再不出痘).”(鄭鑄完, 앞의 책, 卷上 出痘三日)

80) H. G. 언더우드 저, 李光麟 譯, 『韓國改新教受容史』(일조각, 1989), 70쪽.

81) “夜久新羅曲 停杯共聽之 聲音傳舊譜 氣像想當時 落月城頭近 悲風樹抄嘶 無端懷抱惡功益爾何爲.”(李崇仁, 十一月十七日夜 聽功益新羅處容歌 聲調悲壯 今人有感, 『陶隱集』권2, 시)

퍼뜨려 평화로운 질서가 깨지지 않고 아내가 원상회복되기를 바랐던 신라 처용의 마음이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용랑 망해사’ 조에서 “지신(地神)과 산신(山神)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우려하여 춤을 추어 경계하였다”<sup>83)</sup>고 했는데, 처용무와 이들의 춤은 위기 상황에서 원상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 조의 ‘범처(犯妻)’를 두고 “역신이 사람으로 화하여 처용의 아내를 능욕하다”로 풀이하기에는 난점이 많다. 산문 기록 속 “變無人夜至其家竊與之宿”의 ‘변(變)’에는 “역신이 사람으로 변하여 여”라는 의미 외에도 “정기가 뭉치어 물(物)이 되고, 떠도는 유혼(游魂)이 모여 변(變)이 된다.”<sup>84)</sup>의 ‘변’, 즉 ‘귀신(역신)’과 동일한 지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sup>85)</sup> 이에 〈처용가〉의 구절 “드러사 자리보곤 / 가로리 네히어라(入良沙 寢矣見昆 脚烏伊 四是良羅)”는 처용의 처가 두창의 침범을 당한 것을 현실감 있게 적은 것이고, 설화 속의 “其妻甚美 瘦神欽慕 [...] 變無人夜……”를 “처용의 처가 심히 아름다워서 역신까지도 그녀를 우러러 사모하였다. 이에 역신이 딴 사람이 없는 야밤을 틈타 그 집에 와서 몰래 그녀의 잠자리에 들었다”<sup>86)</sup>로 풀이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시 말해 ‘범처’를 “물과 불이 해를 입혀도 구제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하늘의 재앙은 어떻겠는가?”<sup>87)</sup>, “계자고(季子皇)가 아내를 장사 지내면서 남의 논을 침범하자……”<sup>88)</sup>, “무릇 크게 취한 사람은 수레에서 떨어져서 놓을지언정 죽지는 않는다. 골절이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겠지만 상처를 입는 것이 남들과 다르다. 이는 (떨어질 때) 정신만은 온전하기 때문이다”<sup>89)</sup>에서 쓰인 것처럼 “두창신이 처용의 아내에게 질병을 옮기어 해를 입히다 / 처용의 아내에게 두창이 덤벼들어 해치다(侵犯, 犯害, 侵害)”로 풀이하고자 한다. 여기서 처용 처의 빼어난

82)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보존회, 『처용무보』(민속원, 2008), 214쪽.

83) “乃地神山神知國將亡 故作舞以警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欺樂滋甚 故國終亡.”(『三國遺事』 卷2, 「紀異」, 處容郎 望海寺)

84) “精氣爲物 游魂爲變 是故知鬼神情狀.”(『周易』 繫辭 上)

85) 洪在煥, 「處容郎 望海寺 說話의 校訂字辨正-處容郎 夫妻의 寛容, 不貞說 辨正을 為한 訳釋의 考究」, 『女性問題研究』 8(효성여대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79), 97쪽 참조.

86) “其妻甚美 瘦神欽慕之 變無人夜至其家 竊與之宿.”(『三國遺事』 卷2, 紀異).

87) “水火之所犯 猶不可救 而况天乎, 犯 害也.”(『國語』 周語 下)

88) “季子皇 葬其妻 犯人之禾.”(『禮記』 第4, 檀弓 下)

89) “夫醉者之墜車 雖疾不死 骨節與人同 而犯害與人異 其神全也.”(『莊子』 達生)

미모가 역신의 침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질병의 귀신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시새움했음을 뜻하고, 함께 잤다는 것은 그녀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다.”<sup>90)</sup> 또한 〈처용가〉 마지막 구절의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奪叱良乙何如爲理古)”의 ‘탈(奪)’도 “처용 아내가 능욕을 당하였다”, “처용 아내의 정조를 빼앗다”는 등의 성적인 의미보다는 “(처용이 역신에게) 잠자리를 빼앗기다”로 읽고자 한다. 당연히 처용이 들어야 할 잠자리를 역신이 차지하고 있으니, “본디 내가 들어야 할 잠자리이고 내가 품어야 할 아내이지만 역신에게 앗겼으니 도리가 있겠는가?” 하며 역신을 공격할 의지도 경계하는 마음도 전혀 없는 체하는 표현이다.

미리 알아차리진 못했지만 내 자리를 이미 당신이 차지하고 있으니 굳이 물러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역신을 도리어 안심시키고 반가운 ‘손님’으로 대접하는 극진함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잠자리를 역신에게 내어주며 역신의 자리를 인정함으로써 역신이 공격 의지를 누그러뜨리고 자발적으로 물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때론 부드러운 태도가 공격적 자세보다 강한 작용을 하는 법인데, 처용무와 〈처용가〉는 삼가 조심스러운 태도 속에 질병 퇴치라는 궁극적이고 진정한 바람을 내재화한 것이다.

#### IV. 맷음말

그간 신라 〈처용가〉의 7·8구, “본디 내 것이지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를 흔히 관용이나 체념, 분노와 질책 등으로 풀이해왔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치명적인 전염성과 치사율을 보이는 역신, 즉 ‘두창을 옮기는 신’을 ‘손님, 마마’라 부르며 정중히 모셨고 공격적 자세를 일절 금기시하였다. 이에 신라 〈처용가〉는 두창에 대한 민간의 금기(禁忌)와 질병 인식에 따른 외신(畏慎)·외기(畏忌)·기휘(忌諱)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따라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 조의 역신(疫神)의 ‘범처(犯妻)’는 “역신이 처용의 아내에게 두창을 옮기어 해를 입히다(侵犯, 犯害,

90) 임재해, 「처용·담론에 나타난 사회적 모순과 그 문화의 변혁성」, 『배달말』 24(배달밀학회, 1999), 215쪽, 220쪽.

侵害”로, 8구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奪叱良乙何如爲理古)”의 ‘탈(奪)’도 “(처용이 역신에게) 잠자리를 빼앗기다”로 읽었다.

신라와 고려의 두 〈처용가〉는 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 방식과 작품의 성격이 상이하다. 거기다 국어학과 문학, 음악, 무용, 의료, 민속 등 많은 영역과 상관성이 강하므로 작품의 특징을 밝히고 구절을 해독하는 일에 한계가 많았음을 인정한다. 앞으로 기준에 누적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은 물론이고, 영역 간의 통섭적인 연구와 고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처용무의 입무(入舞)로부터 퇴무(退舞)까지의 춤사위가 처용가 입창(立唱)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느냐에 관한 연구도 두 〈처용가〉의 성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國語』周語 下, 『論衡』, 『大東野乘』, 『陶隱集』, 『獨斷』, 『牧民心書』, 『默齋日記』, 『三國遺事』, 『石潭日記』下, 『星湖僕說』, 『養兒錄』, 『於子野談』, 『麗韓十家文鈔』, 『역주 診解痘瘡集要』, 『禮記』第4 檀弓, 『禮記』第19 樂記, 『五洲衍文長箋散稿』, 『栗谷集』雜著, 『醫說』, 『益齋亂藁』, 『莊子』, 『조선왕조실록』, 『周易』繫辭 上, 『稗官雜記』, 『韓國口碑文學大系』7-2 慶州 月城, 『韓國巫歌集』.

김경수 외, 『처용은 누구인가』. 역락, 2005.

김동일 외, 『동의학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여강출판사, 1989.

金東旭, 『處容歌 研究』. 『韓國歌謡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金東旭 · 黃浪江 · 金慶洙 編, 『處容研究論叢』. 蔚山文化院, 1989.

金斗南, 「痘瘡장승考-朝鮮時代의 痘瘡對策과 장승」. 『한국민속학』14, 한국민속학회, 1981, 59-93쪽.

김승찬, 『신라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_\_\_\_\_, 「處容說話와 그 歌謡의 研究」. 『處容研究全集』II 문학1, 역락, 2005.

金烈圭 · 申東旭 · 李相澤 編, 「處容說話의 綜合的 考察」. 國文學論文選 1 『鄉歌研究』, 民衆書館, 1977.

金鍾雨, 『鄉歌文學研究』. 二友出版社, 1983.

金鎮英, 『處容의 정체』. 『韓國文學史의 爭點』. 集文堂, 1986.

김학성, 「〈처용가〉와 관련 설화의 생성기반과 의미」.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3.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민궁기, 「처용가의 생성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고전문학연구』8, 한국고전문학회, 1993, 95-110쪽.

박노준, 『향가 여요의 정서와 변용』. 태학사, 2001.

박인희, 「處容의 實體와 〈處容歌〉」. 『處容研究全集』IV 종합, 역락, 2005.

朴澐雨, 『濟衆院』. 몸과 마음, 2002.

徐大錫, 「處容歌의 巫俗的 考察」. 『韓國學論集』2,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5, 265-285쪽.

안태욱, 「處容說話의 佛教의 研究」. 『處容研究全集』II 문학1, 역락, 2005.

梁柱東, 訂補版 『古歌研究』. 博文書館, 1960.

\_\_\_\_\_, 「古歌箋 筍疑」. 『國學研究論叢』, 乙酉文化社, 1962.

楊熙喆, 『삼국유사 향가연구』. 태학사, 1997.

오명돈, 「바이러스 질환 두창(천연두)」. 『감염학』, 대한감염학회, 2007.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61.

- 이능화, 『조선무속고』. 동문선, 1991.
- 이승남, 「〈처용가〉의 시적 정서와 서사물의 구조」. 『處容研究全集』 II 문학2, 역학, 2005.
- 李英澤, 「우리나라 痘瘡에 대한 醫史學의 研究 – 우리나라 史書 및 古典醫書를 중심으로」. 『中央醫學』 38 : 5, 中央의학, 1980, 275–284쪽.
- 이완형, 「處容郎 望海寺’ 조의 서사적 이해와 처용가의 가능」. 『處容研究全集』 II 문학2, 역학, 2005.
- 李佑成 外, 「韓國學 方法論의 檢討를 위한 제1회 學術 심포지엄 處容說話의 綜合的 考察」. 『大東文化研究』 別輯 I,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2.
- 임재해, 「처용 담론에 나타난 사회적 모순과 그 문화의 변혁성」, 『배달말』 24, 배달말학회, 1999, 189–238쪽.
- 전종희, 「전날의 마마(痘瘡)와 그 예방」. 『醫史學』 2권 2호, 大韓醫史學會, 1993, 122–125쪽.
-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보준희, 『처용무보』. 민속원, 2008.
- 처용연구전집 간행 위원회 김경수 외, 『處容研究全集』 II 문학1 / 『處容研究全集』 II 문학2 / 『處容研究全集』 III 민속 / 『處容研究全集』 IV 종합. 역학, 2005.
- 村山智順 저, 金禧慶 역, 『朝鮮의 鬼神』. 東文選, 1990.
- 崔美汀, 「處容의 文學傳承의 本質」. 『冠岳語文研究』 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159–189쪽.
- 최용수, 「〈처용가〉에 대하여」. 『處容研究全集』 II 문학1, 역학, 2005.
- 최재남, 「〈처용가〉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집문당, 1992.
- 최철, 『향가의 문학적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 洪基元, 「痘瘡의 痘學 및 臨床」. 『대한의학협회지』 8권 3호, 대한의학협회, 1965, 29–33쪽.
- 洪在旼, 「處容郎 望海寺 說話의 校訂字辨正–處容郎 夫妻의 寬容, 不貞說 辨正을 為한 註釋의 考究」. 『女性問題研究』 8, 효성여대 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79, 85–106쪽.
- 황경숙 · 배성한, 「음양오행으로 본 처용무의 구성 원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 회지』 17권 3호, 한국체육철학회, 2009, 199–211쪽.
- 황태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 H. G. 언더우드 저, 李光麟 譯, 『韓國改新教受容史』. 일조각, 1989.

## 국 문 요 약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처용-랑(處容郎) 망해사(望海寺)’ 조의 “처용의 처는 매우 아름다웠는데, 역신(疫神)이 그녀를 흡모하여 딴 사람이 없는 밤을 틈타 그 집에 와서 몰래 그녀의 잠자리에 머물렀다. 처용은 그 모습을 보고 물러나 노래(신라 〈처용가〉)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두고 그동안 체념이나 관용, 항거와 위협, 해탈과 보시, 축제와 향연 등 참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채옹(蔡邕)의 『독단(獨斷)』 등의 문헌에 따르면, ‘역신’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손님 · 마마 · 천연두로도 불리는 ‘두창(痘瘡)’을 일컫는다. 『오주연문장전산고』(“포창(庖瘡)을 앓는 세 소년에게 각각 노부(老夫) · 부녀(婦女) · 승도(僧徒) 귀신이 붙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 그 이름을 문자 붙어 있던 역신이 “우리는 역신의 무리로 포창의 병을 맡았는데, 우리도 이 병을 앓다가 죽어서 역신이 되었다” 하였다) 등에 역신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한 예가 보인다. 중세시대에는 역신이 두창을 퍼뜨린다고 믿었으며 이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으면 가족을 몰살하는 등 치명적인 복수를 한다고 여겼다. 처용이 역신을 공격하지 않고 물러나 춤을 춘 것은 이와 같은 질병 인식에 따른 것이니 ‘외기(畏忌)’, ‘외신(畏慎)’, ‘기휘(忌諱)’ 등의 단어가 가장 합당하다. 그러므로 신라 〈처용가〉 7 · 8구의 “본디 내 것이지만 / 빼앗긴 걸 어찌 하리오”는 역신의 경계심을 늦추어 병마가 피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한 과잉접대의 언술이다.

투고일 2011. 3. 21.

수정일 2011. 5. 2.

게재 확정일 2011. 5. 9.

**주제어(keyword)** 역신(疫神, the goddess of smallpox), 두창(smallpox), 범간(犯姦, violation), 질병(disease), 외기(畏忌, afraid and abstain), 과잉접대(superfluous treated), 처용무(cheoyong' dancing), 오신(娛神, banquet for ghost), 자연의 순리(the laws of nature)